

R-4. 치근면 활택술의 시행 유무에 따른 치주판막술 후 임상적 계측치의 평가

신호범*, 김병옥, 한경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 목적

외과적 치주처치에 앞서 시행되어지는 비외과적 처치는 앞으로의 치주처치에 대한 예후 판정, 치주 질환의 활성화도 및 환자의 구강위생관리능력의 평가, 치료에 대한 환자의 협조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술자에게 제공하며 염증을 제거하여 치은을 외과적으로 다루기 쉽게 해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치료계획에 스케일링 및 치근면 활택술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져야 하지만, 임상에서 중등도의 치주낭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예후가 예상되어지는 환자에서 비외과적 처치만으로 충분히 치석의 제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환자가 보다 짧은 기간에 효과적인 치료를 원하는 경우, 술자의 판단에 의해 비외과적 치주처치의 시행없이 외과적 치주처치가 시행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리라 간주되어지는 환자들에게서 외과적 치주처치에 앞서 비외과적 치주처치를 시행한 경우와 비외과적 처치 없이 바로 외과적 처치를 시행한 경우간의 술 후 12주째 치료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임상지수 측면에서의 치료효과의 차이를 평가하고자 계획되어졌다.

연구 방법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 중 중등도 이상의 성인형 치주염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 12명의 상,하악 대구치 56개를 대상으로 split-mouth design에 의거하여 한 쪽은 치주판막술 시술 전에 치석제거술 및 치근면활택술을 시행한 군(N+S군)으로, 다른 한 쪽은 치주판막술만을 시행한 군(S군)으로 구분한 후, 초진시로부터 치주판막술 시행 12주 째에 다양한 치주 임상지수를 계측하여 치료경과에 따른 계측치의 변화와 두 군간의 차이를 초진시와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치주판막술 후 12주 째에 치주낭 탐침깊이, 치은퇴축, 임상적 부착수준, 치은지수, 치태지수, 치아동요도 모두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초진시에 비해 술 후 12주 째에 두 군 모두 치주낭 탐침 깊이, 치은퇴축, 임상적 부착수준, 치은지수, 치태지수, 치아동요도의 개선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과적 치주처치에 앞서 시행된 비외과적 치주처치가 단순히 임상지수의 개선 측면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함을 시사하였다.